

## 주공, 올 투자사업비 4조 6,062억원 확정 (2002. 1. 1)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택지매수와 건설공사 등에 투입할 총 투자사업비를 4조 6,062억원으로 확정했다. 주공은 올해 투자사업비를 작년보다 3,075억원이 증가한 4조 6,062억원으로 책정하고 전체 사업비 가운데 56.3%에 해당하는 2조 5,945억원을 상반기중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업부문별로는 택지매수비용 1조 6,500억원, 주택건설공사비 2조 9,562억원 등으로 각각 배정했다. 특히 주택건설공사비 부문의 경우 작년보다 17%를 늘려 주택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주공은 전망했다.

## 법원 “레미콘 운송기사 노동자 아니다” (2002. 1. 2)

검찰이 레미콘 운송기사들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던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일 레미콘업체인 이순산업이 최모씨 등 레미콘 지입차량 운전기사 4명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원활동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최씨 등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은 취업규칙이나 복무,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운전자를 내세울 수 있다”며 “이런 사정들로 미뤄 이들은 회사에 종속돼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는 활동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고 다만 레미콘 운반방해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회사측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친지원은 “이들의 레미콘 운반업무는 회사사업에 필수적이고, 사측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토지공사, 1조 2,051억원 상반기 집중 투입(2002. 1. 4)

한국토지공사는 올해 총사업비 투자규모를 2조 1,897억원으로 확정하고 전체 투자액의 55% 수준인 1조 2,051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토공은 통상 상반기에 사업을 준비해 하반기에 투입하는게 사업비 집행방식이었으나 올해는 정부의 재정집행활성화 대책에 따라 투자시기를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택지개발사업에 1조 7,073억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3,824억원, 비축토지 매입에 1,000억원 등이 배정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에서 용인 동백과 파주 교하지구 용지 조성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레미콘 혼화재 사용금지 (2002. 1. 5)

레미콘업체가 올해 골재와 운반비 등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등 혼화재 사용량을 더욱 늘려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시멘트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5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시멘트의 주 수요처인 레미콘업체가 2~3년 전부터 원가절감과 품질제고를 위해 산업폐기물인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 등 혼화재 사용을 크게 확대, 시멘트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레미콘업체는 지난해에만 350여만톤의 플라이애쉬와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돼 5천만톤의 시멘트 내수수요증 7%에 이르는 시멘트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레미콘업체가 골재와 운반비 등의 원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보다 저렴한 이들 혼화재 사용량을 더욱 늘려나갈 분위기여서 시멘트업체의 수요전망치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레미콘업체는 발전소

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플라이애쉬와 용광로의 제강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플라이애쉬의 경우 수도권 레미콘업계는 사용이 일반화돼 있으며 고로슬래그 미분말도 점차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플라이애쉬는 레미콘에 투입되는 시멘트량의 평균 10% 안팎을 대체하고 있으며 슬래그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의 경우 시멘트량의 45%까지 치환하면 다짐작업이 필요 없는 고성능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까지 보고돼 갈수록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서울시, 공공사업 87% 조기발주 (2002. 1. 7)

서울시는 7일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주요 투자사업비 2조 8,064억원의 87%인 2조 4,352억원 규모의 사업을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집행액의 70%인 1조 9,631억원 규모의 사업은 3월까지 발주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자본과 중소기업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 교량, 지하철,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상·하수도 등 SOC 사업으로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사업을 비롯해 ▲전산·소방장비 등 대규모 물품구매사업 ▲전산개발용역 등 IT 관련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기발주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건설공사의 경우 올해 계획된 144건 5,564억원 규모의 공사 발주가 상반기중 완료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 건교부, SOC 예산 67% 상반기 투입 (2002. 1. 7)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66.9%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7일 건설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 15조 2,443

억원에서 인건비 차임금이자 등 소모성 경비를 뺀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12조 8,248억원이며 이 가운데 85.8%인 11조11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예산지출 액수를 나타내는 자금배정 기준으로는 상반기에 연간 예산의 66.9%인 8조 5,725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같은 자금 배정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6조 2,364억원보다 37.4% 늘어난 것이며 상반기 자금배정비율도 지난해 51.6%보다 15%포인트나 높아졌다. 건교부는 이들 공공공사의 90%를 1분기에 조기 발주하기로 하고 예산배정도 예년보다 1~2개월 빠른 16일까지 마쳤다. 건교부는 투자사업의 집행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건교부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재정집행 점검반을 상설화해 집행실적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경기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SOC 예산 집행률은 계획대비 96.5%로 전년보다 2.8% 높아졌고 지난해 쓰지 않았거나 해를 넘어온 예산은 5,411억원으로 '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폐자원 재활용 바람 (2002. 1. 9)

시멘트업계가 산업폐기물을 원료와 연료로 재활용해 원가절감은 물론 수익성 향상과 환경오염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멘트업계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이 향후 업체간 경쟁력 차별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앞다퉀 관련설비투자에 나서고 있다. 쌍용양회는 페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해 지난해 14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올해는 하수슬러지를 시멘트 원료로 쓸 수 있는 설비를 갖춰 연간 70억원의 원료비를 줄일 계획이다. 동양메이저는 지난해 10월 삼척공장 2개 소성로에 산업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가동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폐기되던 석탄재 35만톤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해 28억원의 비

용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최근 50억원을 투자해 국내 업계 처음으로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연간 43,000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쓰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말까지 30억원을 투입해 연간 1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간 8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신양회는 석탄재 등을 연료로 사용해 연간 120억원을 줄이고 있으며 한일시멘트는 지난해 석탄재 정수슬러지 등 10만 2,000톤, 페타이어 정제유 28,000톤을 연료 및 원료로 사용했다. 시멘트업체들이 산업폐기물을 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데다 소성로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연료인 유연탄은 가격이 톤당 5만~6만원이지만 산업폐기물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또 소성로는 내부 온도가 섭씨 1,450도의 고온인데다 1년 365일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완전 소각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로는 내부 온도가 섭씨 1,200도여서 완전연소가 되지 않는 데다 소각 후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열이 식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폐기물 매립 비용이 비싼 외국의 경우에는 시멘트업체가 폐기물 수거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폐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시멘트의 경우 폐자원 톤당 3천~5천엔을 받고 있으며 처리비 수입만 연간 60억엔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시멘트업체들이 폐자원을 돈을 주고 사고 있으나 이마저 공급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8,600만톤 중 시멘트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폐기물을 매립하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IMF, 한국 올해 3.2% 성장예상

(2002. 1. 10)

찰스 아담스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은 10일

“한국의 구조조정은 금융부문에서 확실한 진전이 있었으며 기업부문도 큰 성과를 냈지만 개혁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IMF는 올해 한국경제가 3.2%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회복시기는 선진국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담스 부국장과 폴 그룬왈드 IMF 한국주재 대표는 이날 서울 조선히otel에서 열린「IMF 세계경제전망 순회간담회」에서 올해 한국경제 전망 및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담스 부국장은 “한국의 성장률을 여타 경쟁국이나 선진국보다 높게 본 것은 정보기술(IT) 부문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수출구조와 견조한 내수수요, 적절한 경제정책 운용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경제가 본격 회복하려면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아담스 부국장은 “세계경제는 지난해 ‘9.11 테러’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2.4%대, 미국은 0.7%, 유럽은 1.2%가량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일본은 올해도 1% 가량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세계경제는 하반기에 두드러지게 회복될 것”이라며 “작년 불황을 과거 오일쇼크 당시의 불황 등과 비교할 때 그 악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 동양메이저, 시멘트 부문 분사 확정

(2002. 1. 14)

동양메이저는 14일 임시주총을 열고 시멘트 부문 분사계획을 확정했다. 동양메이저는 프랑스 라파즈 그룹과 합작한 신설법인 동양시멘트(자본금 5,200억원)에 23일 1조 4,749억원 규모의 자산 및 영업권을 현물 출자할 예정이다. 라파즈 그룹은 신설법인에 1억달러를 현금 출자, 2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동양메이저는 동양시멘트가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9,8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돌려받아 차입금을 갚을 계획이다. 동양메이저는 시멘트 분사에 따라 건설과 상사부문만 남게 됐으며 그룹의 지

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주택 보급률 100%해도 年 46만가구 수요 발생”(2002. 1. 17)

올해 안에 주택 보급률 100%가 달성되더라도 연간 46만 6,0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마련된 「주택시장 증장기 전망」에서 오는 2007년까지 신규 주택 수요가 연평균 46만 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올해와 내년에 총 106만 8,000가구, 2004~2005년 96만 6,000가구, 2006~2007년 91만 1,000가구의 신규 수요가 예상됐는데 이는 자가가구 외 대체 수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또 부문별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 현재 전체 주택 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비중이 70~80%로 감소하고 대신 단독이나 다세대 등 저층 주택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향후 단독이나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 20~30% 수준인 연간 10만~15만가구 정도로 추정됐다.

건교부, 국민임대주택 13만가구 건설 (2002. 1. 18)

정부는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3만 2,5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건교부는 18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올해 서울 월계지역을 비롯한 52개 지구에 5만 2,5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사업승인)하고 내년에도 8만가구를 건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4,532억원의 재정과 6,041억원의 기금을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투입하고 택지 63만평을 공급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올해 전체 건설대상의 60% 이상인 3만 3,000가구를 건설하고 광역시 1만 1,950가구, 기타 지방도시에 7,550가구를 건설키로 했으며 특히 전월세문제가 심각한 서울에 1만 5,000가구를 집중 건설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 월계지역에 1,830가구를 건설하고 용인 동백지구에 3,440가구, 용인 죽전에 1,340가구, 안성 공도에 1,500가구를 건설키로 했으며 수도권외 지역에서는 대전 천동지구에 1,450가구, 대구 도원에 1,200가구, 울산 구영에 1,100가구 등을 건설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에는 재정에서 7,701억원과 기금 1조 268억원을 투입, 국민임대주택 8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소요택지 147만평을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활용해 적기에 확보·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여부기간을 현행 10년 또는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연장, 임차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장 벌크시멘트 사용 늘어 (2002. 1. 19)

건설현장의 레미콘 타설작업이 늘면서 벌크시멘트 출하율이 90%대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관련업체에 따르면 종이로 포장된 백시멘트의 판매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벌크상태의 시멘트 출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80년대 후반에는 벌크 출하가 전체 시멘트 출하량의 6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으나 90년대 들어 60%를 넘어선 이후 '92년에는 70%대로 성장했다. 이어 '95년에는 80%대를 훌쩍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벌크 출하율이 88.9%로 최고조에 달했다. 이처럼 포장시멘트 수요가 줄어들고 벌크출하가 증가하는 것은 시멘트 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직행하는 시멘트가 늘어나는 대신 공사현장에서 수작업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특히 레미콘업체들이 9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나

전국에 걸쳐 레미콘 공장들이 속속 들어선 이후 어느 건설현장이나 규정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시멘트의 벌크화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건설업체들이 콘크리트 작업이 쉽고 속도도 빠른 방법을 선호함에 따라 레미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콘크리트 비빔작업을 할 경우 시멘트와 모래 등 원부자재를 직접 쌓아놓고 작업해야 하고 작업을 담당해야 할 기능인력 비용도 만만치않아 레미콘 사용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소형 건설현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포장시멘트 수요가 일시적으로 소폭 증가하면서 2000년도의 벌크화율을 보다는 약간 줄어든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 건교부, 도로운영예산 5,763억원 조기 배정(2002. 1. 22)

건설교통부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도로 운영예산 5,763억원을 상반기내에 6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본부에 조기 배정키로 했다. 22일 건교부가 마련한 「2002년 도로운영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도로운영예산 7,707억원 가운데 이미 배정된 1,272억원, 유보액 672억원을 제외한 5,763억원(74%)을 상반기중 지방청과 본부에 배정, 각 사업별로 집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총연장 624km의 국도 포장보수에 1,150억원, 233곳의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 개선 1,042억원 등 국도유지보수사업에 3,639억원, 위험도로 개량, 도로표지 정비 등 국도시설개량사업에 1,246억원, 국도 병목지점개량사업에 878억원 등이다. 지방청별로는 부산청이 1,598억 9,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원주청 1,558억 8,100만원, 익산청 1,598억 9,900만원, 대전청 952억 8,000만원의 순이다. 유보금 672억원은 수해나 해빙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긴급복구비 등으로 사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예산의 조기배정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정책과 고용창출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서 “예산 집행 독려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각 지방청의 집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산신항·광양항,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2002. 1. 24)

정부는 24일 부산신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 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항만(Hub-Port)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는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WTO)가입 등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중심항만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올해 각각 2,889억원과 1,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부산신항은 5만톤급 배 3척이 접안할 수 있는 3선석 규모로 오는 2006년 조기 개장하며 광양항은 내년까지 12선석 규모를 확보하게 된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국의 화물은 2011년까지 연간 11.5%씩 늘어날 전망이다. 주변국의 항만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일본 고베항의 경우 현재 37선석 규모에 10선석을 추가하고 상하이선 18선석에 92선석이 확충될 예정이다. 또 카오슝은 27선석에 23선석이 추가되고 싱가포르선 41선석에 39선석이 추가로 건설된다.

### 인도 시멘트산업, 매출량 급증 이익 증가(2002. 1. 25)

인도 시멘트 대형회사들은 지난해 12월말로 끝난 3/4회계분기 중 매출증대로 인해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시멘트 소비지역에서 시멘트회사들이 시멘트를 과잉공급해 가격이 혼탁해지는 바람에 3/4분기중 이들 시멘트 회사의 이익은 지난 2/4분기만큼 급격한 증가를 기

하지 못했었다고 분석가들이 지적했다. 인도는 3/4 분기중 주택건설, 정부 사회간접자본 지출증대, 지진피해지역인 구자라트주의 복구작업 계속 등에 따른 시멘트 소비의 급증으로 이들 시멘트 회사의 전년 대비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텔리의 인도시멘트제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3/4회계분기중 인도 전국 시멘트 판매량은 1년전 같은 분기에 비해 11% 늘어난 2,490만톤이었다. 그러나 이 분기중 시멘트 평균가격은 톤당 145루피로서 전년동기의 155루피에 비해 크게 떨어졌었다. 비르라 선 라이프증권의 분석가인 라비 센노이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멘트 매출량 증대가 일부 가격하락을 발판으로 삼아 이뤄짐으로써 판매량보다 가격에 보다 민감한 시멘트 회사의 이익증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 SOC예산 탄력운동

(2002. 1. 27)

정부는 27일 공항, 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SOC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구체적인 지역, 용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불필요한 이월,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은 주무부처의 요구에 따라 예산회계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목간 예산을 전용하는 등 신축성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사업유형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통합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공항부문은 모두 21개 단위사업에서 3~4개로, 지하철 부문도 7개 단위사업이 3개로 통합 편성되고 도로, 항만, 댐 등 다른 SOC 예산도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1/4분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해당 부처가 새로운 예산편성구조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SOC예산 편성방식이

개선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행정처리지연이나 불합리한 지역민원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역의 사업예산을 다른 지역사업으로 전환해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 정부조달공사 868건 13조 5,178억

(2002. 2. 3)

조달청은 21조2,188억원 규모의 올해 정부조달집행계획을 3일 예시 발표했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토목공사 257건 10조 8,018억원, 건축공사 253건 1조 5,644억원, 토건공사 36건 4,228억원, 전기공사 117건 794억원, 통신공사 74건 345억원, 기타 131건 6,149억원 등 총 868건 13조 5,178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공사가 실시된다. 이중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159건 11조 6,311억원이며 15건 2조 2,092억원 규모의 공사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 내자구매는 7조 1,998억원으로 1,682개 품명 5조 5,549억원이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265개 품명 1조 6,449억원이 국제입찰로 각각 구매될 계획이며 외자구매는 5,012억원 규모이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전체 조달 집행계획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내자구매에 있어서도 5조 3,200억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형주택사들 올 23만가구 공급

(2002. 2. 8)

한국주택협회는 8일 90개 회원을 대상으로 올 주택공급 계획(오피스텔 제외)을 조사한 결과, 모두 59개 회원사가 전국적으로 23만 1,145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2만 5516가구와 비교해 다소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서울 46,806가구를 비롯해 부산 15,700가구, 대구 14,639가구, 인천 17,472가구, 광주 2,142가구, 대전 3,994가구, 울산 3,092가구, 경기

81,194가구, 강원 1,286가구, 충북 2,380가구, 충남 7,387가구, 전북 1,475가구, 경북 2,980가구, 경남 23,361가구, 미확정 7,237가구 등이 있다. 업체별로는 롯데건설이 18,57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영(16,026가구), 벽산건설(15,639가구), 현대건설(15,407가구), 삼성물산(11,694가구), 대우건설(11,642가구), 대림산업(10,806가구), 풍림산업(10,242가구), 현대산업개발(9,713가구), 이수건설(6,375가구) 등의 순이었다.

## 투수성 콘크리트 개발

(2002. 2. 16)

버려지는 폐석회석을 이용한 도로포장용 투수성 콘크리트가 개발돼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충북 제천의 대원과학대학 지효선 교수팀은 지역 내에서 다량 발생하고 있는 폐석회석을 재활용한 포장용 투수성 콘크리트를 개발, 환경보호는 물론 도로공사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효선 교수는 쌍용양회와 아세아시멘트 등 시멘트업체들이 집중돼 있는 제천에서 시멘트 원료로 부적합한 순도가 낮은 석회석이 연간 300만~400만톤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켠에 따로 적치된 채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투수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폐석회석은 강모래 대신 골재로 사용되는데 시멘트에 10mm 짜리 폐석회석과 함께 유리섬유 등의 혼화재를 섞어 휘강도와 투수계수가 뛰어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다는게 지효선 교수의 설명이다. 지효선 교수는 이같은 혼합비율로 오는 3월중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라며 가격이 비싼 강모래 대신 폐기되는 석회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투수성 콘크리트는 인도와 자전거전용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및 체육시설 등에도 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린벨트 18곳 10만가구 분양

(2002. 2. 19)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18곳에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18곳 376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해 10만 2,400여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도시 저소득 영세민에게 시중 전세금의 50~60% 수준으로 최장 30년간 빌려주는 국민임대주택 6만여 가구가 들어선다. 나머지 42,000여 가구는 5년 임대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일반 분양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채워진다. 소규모 개발 대상지에서는 이르면 내년말께 국민임대주택과 민영 아파트가 분양돼 2006년부터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수도권 그린벨트 11곳 260만평에만 1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환경단체 반발이 심해 지방 대도시 7곳을 포함해 총 10만여 가구를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 물류인프라 확충, 1.5조원 투입키로

(2002. 3. 2)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항만·공항 등 인프라확충사업에 1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또 인프라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세부실천계획이 마련된다. 2일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확충과 관련제도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항만·공항 등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도약 관련예산을 지난해보다 30%가 늘어난 1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부문별로는 물류인프라 확충에 1조 3,668억원, 자유무역지역 개

발·운영에 587억원,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에 500억원 등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물류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항만건설에 1조 3,0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신항만개발에 5,781억원, 권역별 주요항만 개발사업에 3,190억원, 항만시설유지보수에 1,255억원이 지원된다. 7개 신항만개발 사업비는 지난해에 비해 28%가 늘어난 것으로 항만별로는 부산신항 2,899억원, 광양항 1,108억원, 평택(아산)항 493억원, 인천북항 224억원, 목포신외항 411억원, 울산신항 405억원, 포항영일만 신항 202억원이 각각 책정돼 기반시설공사를 벌이게 된다. 또 내륙화물기지 건설에 138억원, 유통단지 개발에 144억원 등 물류거점시설 확충에 282억원이 투입되고 인천공항 2단계 건설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 327억원이 책정돼 있다. 자유무역지역 개발·운영사업비는 군산자유무역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327억원), 설계비·부대시설비(247억원) 등 574억원이 지원되고 마산과 익산자유무역지역 시설관리비 등으로 10억원과 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 日, 건설사 줄줄이 파산 (2002. 3. 3)

지난해 말 일본의 중견 건설회사인 아오키(青木)건설에 이어 사토(佐藤)공업이 3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 건설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건설업계 도급 순위 10위인 사토공업은 공공건설 프로젝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영난에 봉착, 본사와 8개 계열사의 파산을 법원에 신청했다. 사토 본사의 부채는 지난달 말 현재 4,500억엔이며 계열사들까지 합칠 경우 그 규모가 5,675억 4,00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터널공사 경력이 화려한 사토는 공공 공사를 중점적으로 수주, 매출의 50% 이상을 올렸으나 일본 정부가 재정난 때문에 이를 대폭 줄이는 바람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채권은행들이 자체 경영난 타개를 위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도 회생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풀이됐다. 주

채권 은행인 다이이치강교은행과 기타 채권은행들은 지난 99년 3월 1,109억엔의 부채를 면제하기도 했으나 끝내 사토 되살리기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사토가 과거 '거품경제' 당시 골프장과 휴양지 건설에 과다하게 투자한 것이 '90년대 거품이 걷히면서 막중한 부채를 안기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토는 3,4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사토의 파산 신청은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 타개책을 밝힌 데 뒤 이은 것이어서 향후 다른 건설회사로 파급될지가 주목된다.

### 日 최대 시멘트업체, 제품원료로 우육골분 사료(MBM)사용키로 (2002. 3. 4)

일본 최대의 시멘트 제조업체 다이헤이요(太平洋)시멘트는 광우병 파동 이후 사용금지된 우육골분 사료(MBM)의 국내 비축분을 소화하기 위해 MBM를 제품 생산 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다이헤이요 시멘트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공식요청이 있어 기꺼이 MBM을 제품생산 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오는 6일부터 하루 약 10톤 물량의 MBM을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헤이요 시멘트는 특히 MBM소화물량을 하루 15톤으로 늘릴 방침이다. 처분경비는 MBM생산업체들이 지급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보조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 9월 광우병 발생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되자 다음달 MBM의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MBM비축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골칫거리로 지목돼왔다.

### 공정위, 레미콘단체 무더기 제재 (2002. 3. 7)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업자단체들이 공급가격을 결정·유지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일삼



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4~6월중 레미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6개 사업자단체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협회 대구·경북지부를 비롯해 서울·경인, 강원도,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남동부, 경북, 울산,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광주권역, 전남서남권, 여수, 순천, 광양지역레미콘협의회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단체 모두에게 위반행위 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11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회원·조합원사에 서면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협회 대구·경북지부, 강원도, 대전·충남, 충북, 전남동부, 경북, 울산,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9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총 6,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재경부, 보험사 민간SOC 출자 허용 (2002. 3. 16)

재정경제부는 보험회사들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효율적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SOC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SOC회사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SOC회사 등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비상장주식의 소유한도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총자산의 10%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허용초기에 과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5년 3월까지 3년간은 총자산의 5%범위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SOC 관련 자회사 소유는 현재와 같이 승인제를 유지하고 자회사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설정, 무분별한 자회사소유를 방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추진은 정부의 투자 재원이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 재원이 많은 보험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SOC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건설투자 향후 10년간 연평균 4.5% 증가(2002. 3. 19)

앞으로 10년간 건설투자는 연평균 4.5% 증가, 오는 2010년에는 투자액이 107조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향후 10년간 건설투자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물가 등 기타 인상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불변가계 기준으로 오는 2010년 건설투자액은 107조 6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2001~2005년에는 연평균 5.0% 증가하고, 2006~2010년에는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건축투자는 판교신도시 개발, 리모델링 확대 등 주거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 증가에 힘입어 오는 2010년까지 연평균 5.9% 증가, 투자액이 2010년에는 54조 8,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토목투자는 신공항 2단계 공사, 항만시설 투자확대, 고속철도 건설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그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여 증가세가 오는 2005년까지 연평균 3.4%, 2006년 이후에는 3%로 건설투자 증가율에 비해 훨씬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 고강도 콘크리트가 더 경제적 (2002. 3. 23)

고층건물이나 장대교량 등에 적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건설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병환 서울대 교수팀이 펴낸 「고강도 레미콘의 생산기술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보

고서에 따르면 고층건물이나 장대교량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할 경우 경제성이 우수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층건물의 경우 같은 하중일때 보통강도의 콘크리트보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적용하면 기둥의 단면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저층부에서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저층부 기둥의 단면적을 제한치 이하로 유지하면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대교량 등의 토목분야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적용되면 콘크리트 빔의 강성을 높여 경간길이를 늘릴 수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각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어 하부구조의 공사비를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간길이가 일정한 경우에는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빔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빔의 제작과 운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팀은 콘크리트 가격은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강도증진을 위해 시멘트와 플라이애쉬, 실리카흙 등의 혼화재료와 고성능 감수제, 지연제 등의 화학적 혼화제가 투입되고 시공때도 품질관리와 운반 등에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강도 콘크리트는 부재의 단면을 줄일 수 있고 단면에 소요되는 철근의 양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가적인 작업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 차원에서 살펴보다라도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일본, 초음파로 콘크리트 품질 평가 (2002. 3. 23)

일본의 제네콘 하자마건설이 초음파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나타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하자마는 이번 기술개발은 최근 토목학회의 콘크리트표준시방서가 사양규정형에

서 성능규정형으로 이행하는 등 시공후 콘크리트구조물의 품질보증이 시공자의 중요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콘크리트구조물의 품질평가방법은 콘크리트타설 전의 공기량, 온도 등의 측정이 일반적이고 타설후의 평가방법으로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품질평가가 제안되어 있으나 측정치의 오차가 심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다. 하자마는 따라서 이번 초음파에 의한 시공후 콘크리트구조물 품질평가기술을 보유함으로써 타사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음파에 의한 콘크리트구조물 평가기술은 콘크리트중에 체적대비 60~70%의 골재가 혼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하자마가 개발한 기술은 콘크리트구조물의 초음파전파속도를 측정, 골재의 영향을 제거한 수정전파속도를 사용해 유효細孔량을 산정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를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수정전파속도란 콘크리트 안의 골재의 영향을 제거한 페이스트부분의 초음파전파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는 유효세공량(페이스트부의 세공량)과 상관관계에 있다.

### 일본, 시멘트수요 지속 감소 전망 (2002. 3. 28)

일본의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시멘트수요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올해 국내 시멘트수요를 당초 시멘트협회 전망치인 6,800만톤(작년대비 약 4.8% 감소)보다도 더낮은 6,400만~6,5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은 업체에 따라서도 제각각인데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태평양시멘트, 우베미츠비시(宇部三菱)시멘트가 가장 높아 6,500만톤 정도로 잡고 있다. 태평양시멘트는 순수한 수요예상은 6,350만~6,400만톤이나 여기에 2001년도 2차 보

정예산이 유보돼 2002년도에 미치는 부양효과를 100만~150만톤 정도 계상할때 결과적으로 6,500만톤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또 우베미즈비시시멘트는 고이즈미(小泉)정권은 현 시점에서 경제구조개혁에 그칠수 없는 상황이며 경기부양대책도 함께 실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 아래 시멘트수요를 비교적 밝게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일본내 수요를 6,400만톤대로 예상하는 업체는 스미토모오사카(住友大阪)시멘트. 동사는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올해 시멘트수요를 6,400만~6,500만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경기악화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6,400만톤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고 원가절감 등 경영체질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기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다.

## 레미콘 공장 확충 '바람'

(2002. 4. 6)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늘면서 레미콘 수요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계가 생산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내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현장이 늘어나며 대규모 수요가 유발되자 레미콘업계가 앞다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에 나서고 있다. 아주산업은 최근 태릉에 공장을 신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및 판매활동을 시작했다. 태릉공장은 서울 도심과 동대문, 성동, 성북구를 주 출하범위로 하고 있는데 아주산업의 태릉공장 신설로 이들 지역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기대되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공사현장이 많은 이들 지역은 그동안 일부 업체만 납품이 가능,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자체 배치플랜트 설치를 고려할 정도로 수급 불균형이 심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태릉공장은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하남시와 서울 강동구 및 송파구 잠실지역까지 출하가 가능, 향후 이들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현장 발생으로 인한 레미콘 수요 폭증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업계

는 보고있다. 공장관계자는 신설된 태릉공장은 이 지역의 레미콘 수급을 해결해준은 물론 점차 증가하는 고강도 레미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생산설비 및 기술력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남구 세곡동에 공장을 두고있는 천마콘크리트는 지난 2월중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크게 확충, 증가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천마는 2기의 플랜트 가운데 1기의 생산량을 기존보다 곱절인 시간당 360m<sup>3</sup>를 생산할 수 있는 기종으로 바꿨으며 80대의 믹서트럭 도급차량도 조만간 20대를 더 확충키로 했다. 천마 관계자는 강남지역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하고 있고 다세대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비수기를 활용, 생산능력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삼표산업이 서울 상암동 인근인 고양시 도내동에 시간당 210m<sup>3</sup> 생산능력이 있는 공장을 신설했으며 유진중합개발도 고양시 대자동에 공장을 신설,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서북부지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건설 잠재수요가 많아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남시 등에 공장신설을 추진하는 업체도 있을 정도로 공장 신증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 쌍용, 노사협력 한마음 선언

(2002. 4. 10)

쌍용양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10일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근로자-경영인 한마음 선언'을 했다. 이날 쌍용양회 노조는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임금 조정안을 회사측에 위임하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위한 행동지침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한광호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후자시현이 이루어져야 근로생활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과 쌍용의 명예회복을 스스로 이루겠

다는 주인의식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해양부 항만시설투자 대폭 확대

(2002. 4. 13)

해양부는 항만적체 해소를 위해 내년도 부산신항 개발 등 항만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동북아물류기지 건설과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예산 1조 8,684억원보다 70.2% 증가한 3조 1,805억원을 내년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내년도 사업예산이 오는 5월경 본예산 요구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나 부족한 항만시설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고 중국등 인접국의 신항만 개발 전에 동북아 물류거점을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지원규모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내년에 부산신항개발 등 총 3조 333억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40건과 세계박람회 개최 기반조성사업 등 총 1,50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11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항만개발사업에는 올해 1조 639억원보다 68.3% 증가한 1조 7,902억원이 투입되며 특히 해양부가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인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에 7,375억원이 집중투자된다. 이밖에 평택항, 인천북항, 포항영일만신항 개발사업에도 올해보다 두배 이상 증액된 예산이 집중투자된다.

## 산림청, 백두대간 난개발 막는다

(2002. 4. 16)

내년부터 백두대간등 주요산맥의 능선부와 산사태 우려지역은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등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채광·채석허가권이 시장·군수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림청은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 심의와 추후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폭 강화, 환경보전 장애여부와 산림의 수원함양·수질보전기능의 저해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적정하고 자연경관이나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산지전용후 복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산림개발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백두대간과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등 공공이익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 국방·군사시설이나 도로·철도, 사방시설등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시설을 제외하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 대만, 한국시멘트에 반덤핑관세

부과 검토(2002. 4. 19)

대만정부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시멘트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만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타이완시멘트를 비롯해, 아시아시멘트, 럭키시멘트, 싱타시멘트 등 국내 주요업체들의 요청에 의해 한국과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포틀랜드시멘트’ 2종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 최근 완료했다. 재무부는 조사결과를 조만간 경제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경제부는 자국산업에 대한 피해여부를 판단한뒤 피해가 인정될 경우 빠르면 오는 6월초부터 이들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의 경우 110.99%에서 최고 126.8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핀산은 이보다 낮은 42~104.48%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재무부가 실시한 덤핑조사 대상에는 한국의 쌍용시멘트,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와 필리핀의 울슨스시멘트, 아포시멘트, 리잘시멘트, 솔리드 시멘트 등이 포함됐

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해당조사를 실시한 대만 재무부는 지난 1월 최종 조사작업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임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 KDI, 올 성장률 5.8%로 상향

(2002. 4. 19)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우리 경제가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올 전체적으로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안정성장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점차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날 「2002년 1/4분기 경제 전망」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세 확대와 견조한 내수증가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는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가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4.1%보다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며 정부의 성장전망인 5%대와 한국은행의 5.7%보다 높다. KDI는 특히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실현되지 않고 현재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6%를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은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 경기과열을 우려함에 따라 금명간 거시경제정책 기조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또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의 4.1%보다 낮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 말 대비로는 4%에 근접해 지난해 수준인 3.2%를 오히려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 “초고층 빌딩기술 국가 전략상품으로”

(2002. 4. 20)

국내 건설업체가 한국형 초고층 건설기술을 독자 개발해 국가 전략상품으로 육성, 세계 초고층 빌딩 건설 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초고층건축포럼 신성우 의장(한양대 교수)은 최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초고층 국제 심

포지엄에서 “국내 대형 건설회사들은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니스타워 등 초고층 시공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핵심 엔지니어링 기술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초고층 빌딩 건설기술 확보에 국가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100층 초고층 빌딩 1개동 건설비용은 5억달러로 국내 한 대형 건설사의 연간 해외 공사액 4억달러를 넘어선다. 신교수는 이를 위해 미국에 비해 배 가량 걸리는 국내 고층 빌딩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건축물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30% 이상 절약하며 평균 20~40년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짧은 내구수명을 연장하는 등 한국형 초고층 건설기술을 창조, 초고층 빌딩 선도국으로 올라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상장 건설업체 작년 매출액

전년대비 15.4% 증가(2002. 4. 23)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장 건설업체 42개사의 작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매출액이 30조 8,425억, 영업이익 1조 1,894억원으로 2000년보다 각각 15.4%, 5.4%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현대건설을 제외할 경우, 작년 상장건설 업체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제고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돼 2000년 569%이던 상장 건설업체 전체의 부채비율이 작년에는 287%로 282% 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정상업체들의 작년 부채비율은 현대건설을 뺀 경우, 174%로 200%를 밑돌았으며 2000년에 7천%에 육박하던 9개 관리대상업체의 작년 부채비율은 510.6%로 무려 6,946% 포인트가 빠졌다. 영업실적별로는 현대건설이 작년 3,826억원의 영업이익 적자에도 불구하고 6조 2,973억원의 매출을 기록, 매출액면에서 업계 1위를 고수했으며 다음으로 LG건설 3조 1,531억원, 대우건설 3조 414억원, 현대산업개발 2조 6,073억원, 대림산

업 2조 654억원의 순이다. 연구원은 상위 5개사의 매출액이 상장업체 전체 매출액의 57.1%를 차지했으며 해당기업의 매출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 증가와 재건축 규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으로 향후 1~3년 내에 주택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재 주택부문에 주력하는 건설업체들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쌍용, 1분기 특별이익 1,631억원 (2002. 4. 25)

쌍용양회가 지난 1분기 대규모 특별이익을 기록해 올해 흑자전환까지 바라볼 수 있게됐다. 25일 쌍용양회는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을 통해 지난 1분기에 1,631억원의 특별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올들어 총 4,650억원에 달하는 전환사채가 출자전환됐는데 이번에 발생한 특별이익은 채권금융기관등이 1분기에 전환한 3,500억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에 전환한 전환사채까지 포함하면 올해 특별이익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쌍용양회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이번 출자전환은 채권단과 맺은 채무재조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의미한다”며 “이번 출자전환으로 자기자본 확충과 함께 재무구조도 개선되면서 이자지급액 또한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쌍용양회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다가 계열사 매각까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올해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난해 레미콘 1.2억m<sup>3</sup> 판매 (2002. 4. 27)

지난해 레미콘 판매량은 1억 2천여만m<sup>3</sup>에 달했으며 내수시장에 공급된 시멘트의 4분의 3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공업협회(회장 김호)가 27일 발표한 「레미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81개업체에 소속된 735개공장에서 공사 현장에 판매한 레미콘은 민수 9,369만 2,874m<sup>3</sup>와 관수 2,553만 7,288m<sup>3</sup> 등 모두 1억 1,923만 162m<sup>3</sup>에 달했다. 이같은 출하량은 가장 많은 레미콘을 사용했던 지난 '97년(1억 3,319만 6,735m<sup>3</sup>)보다 10.5% 적은 수치로 올해는 각종 건설경기 지표가 크게 호전되고 있는데 힘입어 최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건설현장에 공급된 레미콘은 4,850만 4,479m<sup>3</sup>로 전체 출하량의 40.7%를 차지, 수도권 건설물량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억 2천여만m<sup>3</sup>의 레미콘을 제조하는데 쓰인 시멘트는 내수용으로 공급된 총 5,005만톤의 77.4%인 3,875만톤으로 추산돼 시멘트업계의 최대 고객은 레미콘업체임을 확인시켜 줬다. 레미콘업계의 내수시멘트 사용률은 지난해가 최고 기록인데 2000년(73.8%)부터 70%대를 넘어서 각종 건설공사의 콘크리트타설 작업이 수작업보다는 레미콘과 펌프트럭에 의한 기계화 시공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7대 업종 구조조정 '가속' 산자부 추진계획 확정(2002. 4. 28)

정부는 상반기 중 신흥제지의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7,400억여원을 출자전환하고 금강화섬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담보채권 676억원은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분야 메이저 5개사를 대형 기종 또는 핵심 부품 위주의 2~3개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제지, 시멘트 업계의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판매와 제품 공동개발 등 업무제휴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의 담합행위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7대 업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 2000년 말부터 추

진해은 구조조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회의를 열어 업종별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수립하는 한편 3/4분기 중 향후 10년간의 산업 청사진을 확정할 예정이다.

## 성신, 수색 출하기지 완공

(2002. 4. 30)

성신양회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5000톤 규모의 시멘트를 저장·공급할 수 있는 시멘트 출하기지(싸이로)를 완공했다. 총공사비 55억원을 들인 이 출하기지는 성신양회의 새로운 시멘트 유통기지로 향후 수도권 북부지역 시멘트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철도 수송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기지는 최근 신세계에 매각된 종전의 성북공장을 대체한 것으로 연간 80만톤 이상의 시멘트 수송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신양회는 이날 노사간 무분규 평화원칙을 선언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합의했다. 성신양회는 외환위기 때 임금동결, 복리후생 유보 등 회사의 구조조정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경영정상화를 이룬 기업이다.

## 건교부, 내년 고속도로 건설에

4조원 투자기로(2002. 5. 7)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건교부는 재무구조의 악화를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비를 축소하려는 도공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 고속도로 건설투자비를 4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해말 부채규모가 12조 4,000억원에 이른 도공이 중장기 재무구조 안정화계획을 수립해 향후 고속도로 건설투자비를 2조 5,000억~3조원 수준으로 유지하

려던 계획을 건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공은 올초 오는 2015년의 부채규모를 지금의 절반수준인 6~7조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재무구조 안정화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조원에 이르렀던 투자규모를 올해부터 2조 5,000억~3조원 수준으로 낮춰 오는 2006년에는 부채규모를 17조원대에서 유지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부담 2조원, 도공부담 2조원등 모두 4조원을 고속도로 건설투자비로 편성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달 안에 이를 확정,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고속도로 건설투자비가 2조 7,000억원대로 낮아진 것은 지난해 서해고속도로가 완공되면서 투자처가 줄었기 때문이지 정책적으로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줄인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2020년까지의 국토간선도로망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쌍용, 환경친화형 시멘트 개발

(2002. 5. 8)

쌍용양회가 산업폐기물을 이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에코(Eco) 시멘트’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페타이어를 이용한 시멘트 제조기술에 주요 대주주인 일본의 태평양시멘트가 갖고 있는 파친코 기계·플라스틱 폐기물을 이용한 시멘트 제조기술을 복합한 환경친화형 시멘트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쌍용양회는 양사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묶어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에코시멘트’ 업체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두 회사의 생산능력을 합치면 연산 5,500만톤 규모로 세계 5위에 해당한다. 태평양시멘트는 일반·산업폐기물 등 도시 쓰레기 소각재에다 석회석을 동일 비율로 혼합해 만드는 시멘트 등 21세기형 최첨단 시멘트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무공해 시멘트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서두

르고 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페타이어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페타이어를 수집·공급을 해주면 환경보전은 물론 시멘트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은, '1,000원 공사 13원 손해봐' (2002. 5. 15)

지난해 건설업체들은 1천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해서 13원의 적자를 보는 등 여전히 취약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적자폭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액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외형 성장세를 보였고 재무구조도 대폭 개선되는 등 대부분의 경영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지난해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지난 '97년 -0.1%로 수익성이 적자로 악화된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전년 -3.9%에서 -1.3%로 적자폭은 대폭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건설업체들이 100억원의 공사를 수행했을 때 1억 3천만원의 적자를 본 셈이어서 여전히 취약한 수익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건설투자 부진 및 가격경쟁, 일부 대기업의 부도로 매출액 경상수익률이 -4.1%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 한라, 옛 흥성산업 삼척공장 인수 (2002. 5. 17)

라파즈한라는 17일 고려시멘트에서 운영중이던 옛 흥성산업 삼척공장의 인수작업을 마무리, 연산 830만톤(크링카 기준)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발표했다. 라파즈한라는 이날 고려시멘트와 삼척공장 인

수 합의를 체결하고 관리조직을 과편해 정상가동 준비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삼척공장을 제2공장인 '신기공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시멘트 반제품인 크링카만 연간 155만톤을 생산하는 흥성산업 삼척공장은 지난해 5월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601억 1,000만원에 라파즈한라시멘트가 인수키로 했다. 그러나 공매가 이뤄질 때까지 임시로 공장을 운영키로 했던 고려시멘트측과 원·부자재의 재고 및 계약직 직원 인수인계 문제로 최근까지 협상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합의를 보게 됐다.

###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출하증가 (2002. 5. 18)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며 아파트 기초공사용으로 투입되는 고강도(PHC) 파일 출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활기를 띠고있는 대단위 주택건설 사업의 영향을 받아 고강도파일 수요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업계가 건설업계에 출하한 파일은 122만 7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만 2,000톤)에 비해 12.4%(13만 5,000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의 생산량은 녀달동안 전년보다 2.3% 늘어 106만 2,000톤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골재구득난이 심화되고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른 생산현장 근로자들의 이직 등으로 생산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생산량에 비해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며 일부 규격은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제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경 350mm 규격은 수요가 해마다 감소하며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바람에 재고를 찾을 수 없고 400mm도 15m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고가 쌓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남양주 호평과 평내지구, 영종도, 화성 태안지구, 천안 불당지구, 인천 당하지구 등 대단위 지구가 착공을 서두르고 있고 주택공사의 이달 분양계획만도 전국 10개



지구 1만 3천여가구에 이르는 등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6월까지도 수요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은, 건설업 1분기 8.9% 성장

(2002. 5. 22)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2년 1/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건설투자와 민간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설비투자와 수출도 증가로 반전돼 1/4분기 GDP가 지난해 동기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한은이 예측한 1/4분기 성장률 4.7%에 비해 1%포인트 높은 수치며 계절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계절변동조정 실질GDP로는 전반기에 비해 1.8%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건설업은 민간건설과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9% 성장해 지난해 2분기 1.5%에서 3분기 7.6%로 크게 상승한 이후 4분기에도 9.5% 성장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높은 성장률을 이어갔다. 민간부문은 토목분야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건축분야가 주거용 및 상업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공업용도 소폭의 증가로 반전함에 따라 작년 동기대비 22.2% 성장하는 등 건축을 중심으로 작년 동기대비 12.8% 증가했다. 반면 공공부문은 학교건축 등이 증가했으나 철도 및 지하철, 도시토목, 상하수도 등 토목분야가 부진해 작년 동기대비 1.5% 감소했다. 아울러 고정투자도 건설투자가 10.1%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3.2% 증가로 반전해 작년 동기대비 6.5% 증가했다. 이 중 건축분야는 작년 동기대비 22.6%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물과 상가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다 공장을 포함한 광공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도 소폭 증가로 반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항만시설, 전력시설 등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으나 공항시설, 철도시설, 상하수도, 도로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어 작년 동기대비 8.2% 감소했다.

## 김포매립지 택지 89만평 조성

(2002. 5. 22)

정부는 김포매립지에 인구 9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89만평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 중 10만평은 외국인 전용주거지역로 별도 개발된다. 정부는 또 주거단지 주변 일대 320만평에 골프장과 경마관련 용지 및 테마파크 같은 스포츠·레저시설을 함께 건설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김포매립지 개발방안(지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김포매립지는 주거·업무·레저·첨단농업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될 것”이라며 “국제업무시설은 외자유치를 통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토지공사가 공영개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포매립지 478만평 외에 인근 청라매립지(30만평)와 사유지(25만평)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어서 총 공사면적은 542만평이 된다. 김포매립지는 국제업무시설과 외국인주거단지가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비롯, 첨단 화훼수출단지는 북측과 남측(신공항고속도로 연결지역 및 심곡천 남측), 주거·상업·공공시설은 동쪽, 레저시설은 주거단지 주변에 자리잡게 된다. 주거단지의 경우 단독주택 36만평, 연립주택 13만평, 아파트 40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녹지율이 21%(화훼단지 및 레저시설 포함시 65%) 이르고 ha당 인구밀도는 133명에 불과할 만큼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 올해 건설수주 76조 전망

(2002. 5. 28)

올해 일반건설업체들의 건설수주 총액이 지난 2월 예상했던 것보다 6조원 이상 많은 76조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수정 전망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2년 건설경기전망」을 수정 보고했다. 경기전망에서 건설연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건설물량이 주거용건축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해외건설 수주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 하반기에는 부동산경기 둔화로 건설물량이 소폭 감소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연은 특히 지난 2월에는 올해 건설수주액을 69조 8,000억원 규모로 예상했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당초예상보다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고 1분기 수주실적이 18조 7,0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수주액을 76조 1,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토목공사는 26조 8천억원의 수주액을 기록, 작년(26조원)보다 3.2% 증가하는데 그치겠지만 건축공사는 49조 3천억원으로 작년(41조 8천억원)보다 17.8%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공공사는 30조 9,800억원, 민간공사는 45조 1,600억원을 기록해 작년대비 각각 3.6%와 19.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연은 그러나 이 같은 수주물량 증가세가 상반기에 집중될 전망이며 하반기에는 주거용 건축수주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주택경기가 활성화된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2.8%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올 GDP 성장률 정부, 6%대 상향 조정 (2002. 6. 6)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대에서 6%대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물가는 목표대로 연간 3% 내외를 유지하고 실업률은 3.5%에서 3% 내외로 낮춰 잡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이달 말 열릴 경제정책조정 회의에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경제지표를 이런 방향으로 수정하되 정책기조 전환은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 증가폭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민간소비 둔화폭도 크지 않아 연간 성장률이 6%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5일 열린 금통위에서 “올 연간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훨씬 높은 6~7%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고려시멘트 법정관리

#### 이르면 6월 중순 탈피 (2002. 6. 7)

고려시멘트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 법정관리에서 벗어난다. 고려시멘트는 법정관리 종료를 반대하는 내용의 채권단 항고를 법원 이 기각함으로써 조만간 법정관리 종료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려시멘트는 지난 3월 29일 「정리채권 일시변제 및 채무면제, 신주 발행」을 골자로 한 정리계획변경 계획안을 인가 받았다. 이에 대해 50여 개사 채권단 가운데 대한중합공업 등 8개사는 “산업은행 등 주채권자와 채무변제율에서 차이가 나고 소송중인 정리채권자의 의견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했다.

### 레미콘업체가 재건축 수주

#### (2002. 6. 7)

레미콘 생산업체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 레미콘 생산업체인 유진기업은 6일 남양주 평내동 평내택지지구에 위치한 문화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레미콘 생산업체로 '96년까지는 서울 장안동 아파트, 빌라 등 건축업도 함께했다. 백운걸 영업부장은 “구리·남양주 일대 레미콘 공장이 많이 입주해 조합원들로부터 호응이 많았다”고 수주배경을 설명했다. 회사측은 문화아파트 140가구를 현 땅에다 토지공사가 조성한 택지 일부를 사들여 총 443가구를 짓는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이름은 「평내 마젤란 21」이며, 지상 7~21층 7개동 규모로 짓는다. 23평 180가구, 32평 263가구로 구성할 계획이다. 평내역에서 걸어서 5~7분 가량 걸린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또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도 수월하다. 입주가 완료되는 2005년께 경춘선 복선공사가 완료된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03가구로 올 하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다.